

1980년대 재일교포 종합잡지 『한양(漢陽)』에 드러난 반미 의식 고찰*

A Study of Anti-American Consciousness Revealed in Hanyang, A Comprehensive Magazine for Korean Residents in Japan in the 1980s

한승우**

국문요약 1980년 광주 민중항쟁은 반미 감정의 도화선이 되었다. 이후 한국의 반미는 일방통행으로 일관한 지난 50여 년간의 한미관계와 대미 콤플렉스를 교정하려는 역사적 요구의 성격을 지니며 발전해 간다. 민족을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세계적 좌표 속에 어떤 방식으로 위치 지을 것인가는 당시 민주 세력의 큰 역사적 과제이기도 했다. 이러한 인식에서 한국의 문제점들을 가장 먼저 분석했던 것이 재일교포 지식인 잡지 『한양(漢陽)』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관심받지 못했던 『한양(漢陽)』의 반미 소설을 들여다보면서, 1980년대 반미 의식의 관점을 새롭게 조명해 보고자 한다.

핵심어 한양, 재일교포 잡지, 반미 의식, 반미 소설, 탈식민주의

- 차례**
- 광주 민중항쟁과 1980년대의 반미의식
 - 제국주의적 독점자본에 의한 횡포와 민족의 주체성 자각
 - 주한 미군의 민간인에 대한 만행
 - 세계 정의 수호라는 허상과 미국의 민낯
 - 결론

모함 이동 역시 진압 작전용이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배신감은 확신으로 바뀌었고, 한국의 정권 교체에 개입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냐는 의심은 진실이 되어갈 수밖에 없었다. 이로써 광주 항쟁은 반미 감정의 불씨 확산의 도화선이 되었다.

민주주의의 수호자로서 자처하던 미국을 믿고 의지했던 것에서 오는 배신감은 민주화 세력들을 분노와 저항으로 이끌었다. 1980년 12월 광주 미문화원 방화, 1982년 3월 부산 미문화원 방화, 1985년 5월 서울 미문화원 점거와 같은 일련의 사태들은 들끓는 반미 감정을 반증하는 사례였다. 이러한 인식은 남북 분단의 책임, 한국 경제의 중속성, 외세 세력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자주성에 대한 각성으로 이어지면서 반미의식을 더욱 가속화했다.

일본에서 발간되고 편찬되었던 재일교포 종합 교양잡지 『漢陽』은 광주항쟁 당시 긴밀한 취재와 보도를 진행한 바 있었고, 이후로도 비판적인 관점의 논설과 독재정권에 대한 가열찬 논설을 펼치며 독재 정권을 향해 칼날을 드리웠다. 그뿐만 아니라, 광주항쟁의 원인으로 군부 군사정

1. 광주 민중항쟁과 1980년대의 반미의식

1980년 광주 민중항쟁을 계기로 카터 행정부에 대한 한국 민주화 세력의 실망은 커졌다. 한국군 작전 지휘권을 소유한 카터 행정부는 광주로의 군 병력 이동을 결과적으로 승인한 셈이었고, 그로 인해 광주 시민의 학살과 신군부에 대한 방조의 숨은 주역이 되었기 때문이다. 미 항공

* 이 논문은 2024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신진연구자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4S1A5A8026274)

** 중앙대학교 교양대학 부교수

권을 지목하였고, 더불어 이를 방조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협력한 혐의가 짙은 미국에 대한 반미 감정을 선도적으로 표출하였다.

㉠ 우리는 민족의 자주성을 내외에 천명하고...한미 양국 관계의 새로운 설정이 피차의 뼈아픈 반성으로부터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¹

㉡ 田前: 따라서 우리가 어느 정도 민주화를 진취할 때까지 박정권의 파쇼 압제에 제동을 가하고 인권유린을 감시하면서 우리의 민주화운동을 도와주어야 한다. 그것이 자유민주주의를 이 땅에 심어준 은인이요 우방인 미국의 책임이다-이렇게 애걸했던 것입니다.

金: 그러나 그런 환상과 기대에서 잠 깨게 하는 사태가 유신정권의 파멸과 동시에 일어난 一·二·一 사태, 광주사태, 그리고 전두환 세력이 정권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이것 봐라는 식으로 눈앞에 전개되었지요. 그런 사태를 체험하면서 한국민의 대미 인식은 크게 전환된 것이라고 봅니다.²

㉢ 미국을 구세주로 믿고 미국에 의존하여서만 「코리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친미 사대주의적 「지명인사들」이 한국 민주민중운동을 이끌던 우매한 시대는 지나갔다. ...민족적 자주성은 새 시대의 철학이고 새 인간의 기백이며 새 질서의 원리적 골격이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민족적 불행과 재난은 우리 민족의 「절대적 독립」에 대한 자신의 침해행위를 응당한 것으로 옹호하는 그 오만 무례한 미국의 대한 자세에 근원이 있다고 우리는 여기서 단호히 외친다. ...우리는 바로 이 근원으로 육박하는 싸움을 선언한다. 그것이 바로 민족해방 자주운동이자 곧 반미 구국운동이다.³

㉣ 첫째, 이때까지 미국을 무조건 혈맹관계의 은인으로 생각

하던 사고에서 미국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그 대한 관계의 잘잘못을 비판적으로 보려는 물결이 점차 높아졌다. ...미국은 독재권력의 광주살육을 말린 것이 아니라 목인하고 추인했으며 빨래 방망이를 갖다주고 때리라고 한 것이다.⁴

㉤ ...미국에 대한 규탄이며, 종속관계가 아닌 경제 관계의 수립을 요구하고 궁극적으로는 군부독재를 지양하고 민주주의와 호혜평등의 이념에 입각한 한미 우호관계의 정립을 바란 것이라고 해석하였다.⁵

〈漢陽〉의 논조는 분명한 것이었다. 광주항쟁을 목인하고 전두환 정권의 독재를 눈감아 준 일련의 사태에서 그동안 “혈맹관계”와 “은인”이라는 말들로 포장되어 있던 미국의 진면목을 지적한 것이다. 일련의 사태로 인한 처절한 반성 끝에 생각해 낸 해답은 양국 관계에 “새로운 설정”이 반드시 필요하며, 그것은 “민족해방”과 “자주운동”을 기반으로 한 “반미 구국운동”으로 귀결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군사 파쇼 정권은 우리를 둘러싼 강대국 사이의 대립이나 남북 동포들 간의 이념적 갈등에서가 아니라, 바로 미국의 동북아 전략에 따른 간섭과 지배 때문에 생겨난 것으로 결국 외세가 창출한 것이⁶라는 관점으로까지 전개되며, 미국에 대한 깊은 배신감을 바탕으로 한 자주민족에 대한 갈망으로 표출된다.

이상의 『漢陽』의 논조는 잡지에 실린 반미 소설로 이어지고 있다. 미국이 지배하고 있는 경제적 종속, 한국에 주둔 미군들의 만행, 선량한 민주주의자의 가면을 쓴 위선적 면모를 고발한다. 국내 소설에서 반미제는 80년대 후반에 들어서 활발히 전개된다.⁷ 이에 비해, 『漢陽』은 상당히 앞선 시기인 80년대 초반부터 반미 의식을 바탕으로 한 소

1 한국반군사독재연합, 「미국은 우리의 우방인가」, 『漢陽』, 1982.7~8월, 94쪽.

2 김성호, (민족시보본설위원), 田前康博(매일신문외보부), 猪狩 章(조일신문외보부차장), 좌담회 「미국은 한국민에게 무엇이었나」, 『漢陽』, 1982.7~8월, 104쪽.

3 임동규, 「민족주의의 선언」, 『漢陽』, 1983.3~4월, 15쪽.

4 「반미지향 깊이는 한국의 현황(상)」, 『漢陽』, 1983.5~6월, 46~48쪽.

5 「반미지향 깊이는 한국의 현황(하)」, 『漢陽』, 1983.7~8월, 122쪽.

6 황석영, 「항쟁 이후의 문학」, 『창작과비평』, 창작과비평사, 1988 겨울, 51쪽.

7 이성욱, 「반미문학의 전개과정과 과제」, 『실천문학』, 실천문학사, 1988 여름, 98쪽.

설을 선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반미 소설에 포함되어 논의되지 못했던 『漢陽』의 소설 작품들을 발굴하여 조명하고자 한다.

2. 제국주의적 독점자본에 의한 횡포와 민족의 주체성 자각

1980년대에는 독점자본의 착취가 극대화되고 그 폐해가 가시적으로 확연히 드러나는 시기였다. 또한 민주주의의 발전으로 민중의 반발과 요구가 거세지면서 민중 현실과 결부된 반외세문학이 대두하게 된다. 또한 민족의식은 점차 반외세, 경제적 예측화에 대한 민족주체성을 내세우면서 민족적 생존권의 확보 문제로 이어졌다.⁸ 실제로, 미국의 초국적기업들은 대체로 선진제국의 자회사 임금수준의 1/4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불하였으며, 초국적기업의 모회사 보수에 비하면 1/6에 해당하는 수준⁹에 불과했다. 외국 지원에 의존해 있던 국내 자본의 모순이 드러나면서, ‘미 제국주의 국가 독점자본’ 대 ‘신식민지국 민족에 대한 수탈’이라는 대립 구조는 본격적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에 이른다. 이러한 구조상의 모순을 인식하는 데에는 민중의 “정치적의식의 고양”¹⁰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1980년 광주항쟁의 원인과 독재정권의 폭압을 계기로 민주화 세력은 미국과 맺고 있는 불합리한 구조적 모순을 각성하게 된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특히 1988년은 소위 반미문학의 절정¹¹에 달하게 되는 것에는 이러한 정치의식의 각성이 밑바탕 되어있었다.

『漢陽』은 국내의 반미 의식의 흐름보다 조금 앞서 있었다. 미국이 보이고 있는 독재정권에 대한 비호와 민주주의

수호자로서의 모호한 태도, 한국의 정치적 권력을 계속해서 예측하려는 시도를 일찌감치 비판하고 나섰던 것이다. 「병든 깃발」¹²은 이런 논조 안에서 미국의 다국적 기업이 우리 민족의 자생적 경제발전을 저해하고, 우리 노동자를 수탈하는 현실을 그린 작품으로 평가할 수 있다.

「병든 깃발」에서는 차별과 인격 모욕에 시달리던 여공들이 미국인 사장을 향해 인간의 존엄을 외치며 임금 상향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는 것으로 시작된다. 미국인 킬버 사장은 “노임 40%” 인상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고, “한국인 주제에 입은 살아가지고” 그동안 자신이 베푼 혜택에 대해 감사할 줄 모르는 불손한 태도에 분개한다. 더군다나 “미국인만 사람인가요?”라고 당돌하게 쳐다보는 여공들의 눈빛에서 적의를 느끼면서 더욱 심사가 뒤틀렸다.

책상 유리 밑에 깔린 무슨 일람표며 메모한 것이며 따위들과 함께 커다란 성조기가 눈에 안겨왔다. 그것이 이 한국 땅에 비쳐 든 미국의 권위의 상징이라고 보아오는 킬버였다. 성조기의 권위를 후광으로 받으며 이 땅에서 쌓은 재부도 영광도 많았다. ...식민지 한국에다 투자한 이 기업체에서는 킬버의 돈주머니를 적지 않게 불러주었다. 그 모든 재부가 미국의 권위를 배경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경쟁자도 시비군도 없다. 녹거리 인건비에다 한국의 관세 제도는 미국기업체들의 무역에 무한대한 특전을 부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킬버는 자기가 획득한 재부보다도 그것을 가져다준 미국의 권위를 더 소중히 여겼다. 그래서 성조기를 늘 눈앞에 놓고 사는 것이다. 그 깃발을 신주 모시듯 하는 가운데 그의 미국인으로서의 자존심은 더욱 높아갔고 식민지인종들에 대한 멸시감은 더욱 더 짙어갔다.

- 「병든 깃발」, 180~181쪽

킬버가 볼 때, 한국은 미국의 식민지로 미국의 배려 안

8 임헌영, 『변혁운동과 문학』, 범우사, 1984, 89쪽.

9 류상영 외, 『한미관계의 재인식 1』, 두리, 1990, 220~221쪽.

10 버리 편집부 편, 『신식민지 국가독점자본주의 논쟁』, 도서출판 버리, 1988, 27쪽.

11 장자영, 「해방 이후 소설의 한미관계 수용 연구」, 중앙대 석사학위논문, 2004, 78쪽.

12 박종서, 「병든 깃발」, 『漢陽』, 1983.1~2월. 이하 본문에 페이지만 제시하고, 맞춤법과 띄어쓰기는 인용자가 수정하여 제시함.

에서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하찮은 국가에 불과했다. 한국의 관세 제도는 미국업체에 무한의 특전을 부여하였고, 그동안 킬버는 미국인이라는 지위를 바탕으로 큰 재산을 축적할 수가 있었다. 그는 “원주민이나 뒤떨어진 민족을 착취하고 억압”하여 “미국을 비대하게 하는데 복무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인물이었다. 오직 미국인만이 세상의 부와 문명을 차지할 만한 유일한 민족이라고 믿어왔다. 미국인으로서의 자존감으로 평생을 살아온 킬버를 향해 날아온 여공들의 당돌한 외침은 그래서 참으로 참기 어려운 것이었다. 눈에 거슬리는 여공들을 해고했지만 성에 차지 않았고, 무너진 자존심이 회복되지 못했다. 킬버의 나이 든 육신과 질병으로 무너진 체력이 이런 일련의 사건들과 겹치면서 분노의 감정은 더욱 배가되었다.

킬버는 울적함을 달래기 위해 공들여 만든 자신의 완벽한 왕국인 집으로 가서 위안을 삼으려 했다. 그러나 또 다시 예기치 않은 당혹스러운 사건이 집에서도 발생한다. 결점 없이 완전한 자신의 집 정원에 옆집 개들이 똥을 한 무더기 싸질러 놓은 것을 보고, 불쾌감이 치밀었던 것이다. 마당지기로 15년째 일하고 있는 조영감은 늘 성실하게 그의 집을 가꾸었지만, 하필 킬버의 심기가 극에 달할 정도로 좋지 않은 날 정원에 흙을 남겼다. 킬버는 오랜 시간 자신의 집을 돌보았던 그를 평소 값싼 노예 정도로 여기고 있었다. 자신의 일을 성실하게 하지 않고, 자신의 왕국에 더러운 결과물을 그대로 방치한 조영감에게 참을 수 없는 분노가 폭발했다. 킬버는 “영감이나 개나 다 같은 족속들”이라고 외치며, 조영감의 얼굴을 똥 덩어리 쪽으로 가져가 치박으려 들었다. 겨우 킬버의 손아귀에서 풀려난 조영감은 강경하게 항의하였고, 미국인과 한국인의 관계를 주인과 노복의 관계로 인식했던 킬버는 그의 반항에 충격을 받는다.

여공들의 파업과 조영감의 반항은 킬버를 한 번에 무너트렸다. “미국은 한국의 원조자이며 또 우방국”으로써,

그동안 미국의 기업은 한국의 노동자를 먹여 살리는 자비와 은혜를 무한히 베풀었다. 그런 미국에게 그리고 미국인인 자신에게 고마움을 표하기는커녕 반항을 넘어 저항을 하는 한국인들의 되먹지 못한 행동에 킬버는 예상치 못한 공격을 당한 것 같았다.

「원래 미개발국이나 발전도상국들은 선진국의 후원하에서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요. 선진국의 후원을 배척하는 것은 잘못이요. 열등 민족으로서 그냥 석기시대에 남아 있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생각이란 말이요. 한국의 경우가 그렇소. 한국이 열등 민족 대열에서 벗어나자면 미국의 원조에 고분고분하는 길밖에 없소. ...그렇기 때문에 당시들도 이와 같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떠들어대는 게 아니요. 우리 회사에는 엄격한 질서가 있소. 쉽게 말하면 노동자들이 자기가 맡은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요. 노임에 관한 문제도 해고에 관한 문제도 모두 회사가 취하는 조치인데 여기에 불복해서는 안 되지. 질서가 파괴된단 말이요.」

...「정말 요긴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본 문제는 미국인들이 우리 한국 노동자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데 있어요. 바로 그 문제에서 우리는 킬버씨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미국인이 우리 한국인을 열등 민족으로 보지 말아야 하며 한국 노동자들을 짐승처럼 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은 종을 부리던 시대와는 다르지 않나요. 지금처럼 밝은 세상에서 종노릇하겠다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병든 것발」, 188쪽

한국이 열등한 민족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미국의 말에 순종해야 한다는 킬버의 주장에, “지금은 종을 부리던 시대”가 아니라며 되받아치는 여공의 반박은 참으로 당돌한 것이었다. 더 나아가 그가 여공들에게 강요하는 “노예 시대 질서”는 현시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하는 대목 또한 심기를 거슬렀다. 킬버가 노동자들에게 보이는 행태는 “임금 노예를 조기는 황금태형(黃金

笞刑)”과 다름없다고 비난하며, 인권 침해를 운운하는 것에 킬버는 말문이 막힌다. 더 이상 미국인의 노예가 되려는 사람은 없다며 차별 대우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고 외치는 여공에게서 자신의 존재감이 무너지는 것을 넘어 미국의 위상에까지 금이 가는 것을 느낀다. 노쇠한 자신의 신체처럼 미국도 이 식민지의 땅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미국의 독점자본에 반발하는 작품들이 가진 의의는 소재가 가진 진보성과 역사성에 있다고 할 것이다. 똑같은 미국 문제를 소재로 다루더라도 이들은 이전과는 달리 미국을 제국주의라는 분명한 인식하에서 그 본질을 공격적으로 폭로하고자 하는 적극적 자세를 견지한다.¹³ 「병든 깃발」은 이러한 점에서 상당한 진보성을 갖는 작품이다. 특히, 독점자본의 주체가 그동안 우리의 우방으로 믿어 의심치 않았던 미국임을 정확히 직시하고 있다는 것과 이를 노동자의 인권으로까지 확대해 나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한미 관계의 전체적 지형을 조망하고 모순점을 비판한 관점을 보여준다. 또한, 미국과 한국의 경제적 관계가 무조건적인 원조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고, 일방적 손해를 감수한 착취적 관계라는 것을 지적함과 동시에 한국인 노동자들이 노예와 같은 취급을 받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 모든 원인은 불평등한 한미 관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80년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에서는 반미가 정치적 신념으로써 미국에 대한 총체적 적대감을 드러내는 개념¹⁴에 머물렀다면, 「병든 깃발」에서는 이제까지의 불공평한 한미 관계는 굴욕적인 경제적 조약을 지적하고 우리가 가진 대미 콤플렉스를 교정하려는 성격까지 지닌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소설의 제목 ‘병든 깃발’과 같이 미국과 한국의 병든 관계에 대해 다시 재고하고, 그 관계를

대등하고 수평적인 것으로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제 의식을 보여준 작품이다.

3. 주한 미군의 민간인에 대한 만행

미군기지의 법적 근거는 미국의 한반도 주둔권을 인정한 ‘한미상호방위조약’(1953.10.1.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정식 조인, 1954.11.18 발효) 제4조에 기초하고 있다.

제4조 상호적 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許與)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¹⁵

이상의 조항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영토주권을 미국에 할양한 셈이고 이에 따라 미국은 군사 전략상 필요한 지점은 어떠한 사용 제한 없이 자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외국의 군대가 주둔한다는 것은 군사적 자주성의 토대가 무너짐을 의미하며, 또한 군사적 자주성의 토대가 무너진다는 것은 독립된 국가의 주권과 그 정치적 자주성이 외세에 의하여 침해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¹⁶ 이로써, 한국에 주둔한 미군은 다양한 실책으로부터 무한의 자유를 허락 받게 되었고, 심지어 군 내부를 넘어 민간인들을 향한 비인간적 행위까지 무마되거나 오히려 공로로 포장되는 부당한 사례도 생겨났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작품이 「勳章」¹⁷과 「달맞이」¹⁸이다. 이 두 작품에서 묘사한 미군의 오만함과 한국인을 경시하는 태도는 미국과 한국의 ‘한미상

15 「한미상호방위조약」,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https://www.archives.go.kr/next/new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5139&sitePage=>, 2014.2.20. 최종 수정 내용 검색.

16 홍성영, 「한미군사동맹의 실상」, 『실천문학』, 실천문학사, 1989 봄, 130쪽.

17 조경수, 「勳章」, 『漢陽』, 1983.3~4월. 이하 본문에 페이지만 제시하고, 맞춤법과 띄어쓰기는 인용자가 수정하여 제시함.

18 이창수, 「달맞이」, 『漢陽』, 1984.3~4월. 이하 본문에 페이지만 제시하고, 맞춤법과 띄어쓰기는 인용자가 수정하여 제시함.

13 이성욱, 앞의 책, 99쪽.

14 권용립, 「친미와 반미, 그 사이에서 숨은 그림 찾기」, 『당대비평』, 2003 봄, 53쪽.

호방위조약'에 근거한 것으로, 실제로 국내 영토에서 벌어지고 있는 자주성 침해의 대표적 사건들이다.

「勳章」에서는 뉴스 카메라맨 윤석의 시선으로 미군들의 행태를 고발하고 있다. 훈장 수여식에서 만난 지벌트 대위는 훈장을 “담배가루가 잔뜩 묻은” 주머니에서 꺼내어 함부로 다룬다. 소중함은 고사하고 고마운 마음조차 없는 지벌트는 훈장을 장난감처럼 공중에서 빙빙 돌려대며 웃는다. 그런 태도가 못마땅한 윤석은 계속해서 그를 눈여겨 지켜본다. 그리고 지벌트가 지난봄 팀 스피리트 82 군사연습에서 보았던 바로 그 중위라는 것을 기억해 낸다.

팀 스피리트 훈련은 삼월 하순에 시작되었다. 상륙작전 총연습이 한창이던 때 해상에서 만난 지벌트는 “공산 사회의 심장부에 성조기를 말뚝 박듯 하겠”다며 기세를 올리던 참이었다. 그는 전쟁을 대하는 마음이라기보다 가벼운 게임을 즐기는 태도로 훈련에 임했다. 급기야 다른 중대들보다 앞설 수 있는 방법을 고심하면서 예정되어 있던 코스를 벗어나 다른 곳으로 상륙정을 이동하려고 한다. 이런 무리한 일을 즉흥적으로 벌이는 이유는 제일 처음으로 상륙 깃발을 꽂아 몇진 미군의 표상이 되겠다는 단순한 생각에서였다. 그러나 지벌트가 아무런 고심 없이 변경하려고 한 코스에는 가난한 섬사람들이 목숨처럼 가꾸는 김양식장이 있었다.

미군들이 훈련하는 지역 근처에는 마합도라는 섬이 있다. 윤석이 그 섬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것은 그곳에 형이 살았기 때문이다. 마합도는 참으로 빈한한 낙도였다. 섬마을 사람들은 눈물겨울 정도로 처량할 만큼 가난했다. 오직 김양식으로만 먹고 살아가던 섬사람들은 김농사가 풍년이 들기를 바라면서, 없는 형편에도 제를 지내곤 하였다. 거센 바닷바람과 맞서면서 생존을 위해 성실히 살아가던 그들을 윤석은 잘 알고 있었다. 마합도에 살던 형은 15년 전에 벌써 저세상 사람이 되었지만, 다리에 장애를 가진 조카 정이는 아직도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다. 가난한 섬사람들의 생계가 달려 있는 양식장 복판으로 지벌트는

상륙선을 몰아갈 계획이었던 것이다. 윤석은 마합도의 김양식장을 피해 가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벌트를 설득했지만, 그는 단순한 승부욕을 이유로 계획을 강행했다.

「당신 무척 천진한 분이군요. 들어 보십시오. 나폴레옹은 장군이 프로시아군을 참패시킨 예에나 전투 때 농민들의 채마밭을 에돌아서 기병 돌격을 하지는 않았답니다. 전사는 무엇을 증명해 줍니까. 전투에서의 승리 그것은 기필코 타인의 희생과 자기의 희생을 뛰어넘어서야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던 말입니다. 이 이치가 잘 이해되지 않으면 우리의 존경하는 맥원수께서 六.二五 동란 때 인천상륙작전을 전개 하던 일을 회상해 보십시오. 그때 맥원수께서는 아깝지 않게 인천시를 불바다로, 수천의 시민을 숯검덩이로 만들었습니다. 오직 승리를 위해서 말입니다.

-「勳章」, 198쪽

지벌트는 승리를 위해서라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희생은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다. 나폴레옹과 맥아더의 예시까지 들어가면서 전쟁에서 민간인들의 희생은 당연한 것이라는 궤변을 늘어놓는다. 전지도 아닌 상황에서 오직 승리만을 외치며 즉흥적으로 코스를 변환하는 지벌트의 무모한 작전에 대해 윤석은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다. 상륙정은 끝내 지벌트의 고집대로 섬마을로 향했고, 윤석은 “양식장 말뚝들이 똑똑 부러지는 소리”를 들으면서 풍년을 기원하던 섬 여인들의 애처로운 모습과 다리를 끌며 처량하게 서 있던 조카 정이를 떠올렸다.

이 땅이 영원토록 아메리카의 종속물로 될 듯이 밀고 온갖 죄행도 거리낌 없이 저지르는 진화되지 못한 인간과 그 인간 아닌 인간이 범한 만행을 공훈으로 치살리는 무리들이 윤석의 눈앞에 확대되어 나타났다. 순간 그의 가슴이 격분으로 차올랐다. 카메라의 각광을 쫓아가듯 윌리엄 지벌트의 얼굴로 갈날 같은 시선을 옮긴 윤석은 지금껏 촬영해 놓은 필름통 위

에 다음과 같은 글을 써놓았다.

「세상에 공개할 것. 필름에는 미군의 죄행이 기록되었음.」

-「勳章」, 200쪽

지벌트는 “아메리카의 종속물”이 된 조국의 힘없는 민중들을 향한 죄행을 공훈으로 인정받아 특진과 훈장을 받게 된 것이었다. 그를 보며 윤석은 참을 수 없는 분노의 감정에 휩싸인다. 더군다나 민간인들의 희생과 맞바꿔 받은 훈장을 함부로 취급하는 것에 더욱 큰 충격을 받는다. 민간인들의 희생을 발판 삼아 얻게 된 지벌트의 훈장을 보면서 섬마을의 양식장을 지켜내지 못했던 자신의 무력감을 통감한다. 윤석은 자신이 촬영한 미군의 무모한 작전 내용과 그것을 이끈 지벌트의 비인간적인 모습을 기록한 영상에 대해 “세상에 공개할 것”을 다짐한다. 필름통 위에 “미군의 죄행”을 기록한 것이라는 메모를 쓰면서 영상 기자로서의 사명감으로 미군이 행한 민간인에 끼친 해악을 폭로하기로 결심한다.

다른 소설 「달맞이」에서도 미군들의 안하무인격 태도와 민간인들에 대한 폭력성은 고스란히 반복되고 있다. 궁핍한 까닭에 인심까지 각박해진 이 고장에서 월봉산(月峰山)만은 특별한 장소로 남아 있었다. 고장을 대표하는 명승지이면서 삶이 팍팍한 마을 사람들이 소원을 빌면서 평안을 바라는 신성한 장소이기도 했다. 먹고살기 빠듯한 형편 때문에 인의예지도 없이 지내던 이 고장 사람들이 달맞이를 하는 정월대보름 무렵만 되면 월봉산에 올라 모처럼 화합하며 소원을 비는 “복산”이었다. 그래서 월봉산은 마을에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믿음의 장소이면서 흩어진 사람들의 마음들을 한데 모으는 통합의 공간이었다.

월봉산의 달맞이 행사는 오래전부터 한결같이 이어졌고, 스물다섯 해 전에도 꼭 같은 모습이었다. 덕보 영감의 아들 준호와 두수 영감의 아들 일봉 역시 사람들과 어울려 달맞이에 참여했었다. 그러나 사냥을 하러 나온 미군들과 불시에 마주치고, 민간인 지역에서 위험한 행위를 하는 그

들을 향해 격렬한 항의를 이어간다. 급기야 다툼으로 번지면서 겁을 집어먹은 미군은 청년들을 향해 총을 발사한다. 동네 사람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참극이 일어났고, 젊은 청년들의 피를 보고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30여 리나 떨어진 미군 부대 병영 앞으로 몰려갔다. 미군의 총에 죽음을 맞은 두 청년에 대한 항의가 계속됐지만, 부대에서는 아무런 대구도 없었다. 이후 반 시간쯤 지났을 무렵, 총을 겨누는 미군들이 나타나 마을 사람들을 포위하고 그 거리를 좁혀오기 시작했다.

너무도 창졸간에 당한 일이라 모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권총을 빼어 든 장교 하나가 통역을 거쳐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지금 당시들은 폭도들처럼 행동하고 있다. 그러므로 미군측은 부득불 자위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다. 현명한 방법은 한시바삐 흩어져 가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위험을 면치 못한다.” …“저런 뻔뻔스런 놈들 봤나!” 덕보는 이를 와드득 갈며 소리 질렀다. 하지만 맘속으로는 더 어찌할 수 없다는 한탄도 했다. 제 눈으로 살인자를 찾지 못했으니 더 해볼 도리가 없었다. 한 가지 방법은 경찰에 신고를 하는 건데 한국 경찰이 미군 범죄자를 잡는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닌가.

-「달맞이」, 191쪽

미군들은 마을 사람들을 폭도로 몰아붙이며 압박해왔다. 그리고 범죄자가 미 군영 안에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였다. 한국 경찰에게 이 상황을 고발해 봐야 그들이 미군을 상대로 공권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을 마을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사람들은 미군들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물러서지 않았고, 그 기세에 눌린 미군들이 한발 물러서며 월봉산에서 다시는 사냥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해주었다. 이날, 젊은이들의 “피의 대가”로 소중한 월봉산을 지켜냈던 것이다.

오늘도 스물다섯 해 전에 죽은 아들의 원혼이 잠든 월봉산으로 달맞이를 가기 위해 마을 사람들은 산에 올랐다.

노인들 옆에는 오랜만에 한 식구들처럼 화합한 마을 사람들이 함께 했다. 한 해의 행운과 무사를 빌면서, 각박한 현실에 조금이라도 빛이 들기를 바라는 절실한 마음들이 모였다. 그런데, 별안간 나타난 미군은 “OFF LIMITS! 여기는 미군부대 포사격장입니다.”라며, 마을 사람들의 길을 막아섰다. “갓뻘, 당신들 작전구역에 불법 침입했습니다. 당장 내려 가시오!”라는 공격적인 말과 위협적 행동이 이어졌다. 동네 사람들 모두는 얼이 빠지는 것만 같았다. 조상들의 묘가 있고, 마을 사람들이 유일하게 믿고 의지하는 월봉산이 부지불식간에 미군의 “작전구역”이 되었다는 말에 기가 찼다. 영감들은 자신의 아들들의 피로 지켜낸 월봉산을 다시 미군들에게 내줄 수 없다는 생각에 거세게 항의하였다.

“갓뻘, 반항자, 불온분자!”

미군 하사관은 이 땅의 점령군으로서의 자기들의 권위를 좀처럼 인정하려 하지 않는 반항자의 얼굴을 힘껏 후려쳤다. 덕보 영감의 두 눈에서 불꽃이 튀었다. 턱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아픔보다도 소중한 월봉산을 뺏으려는 자에 대한 증오가 못 견디게 치밀었다.

“이놈아, 날 죽이면 죽였지 이 산만은 못 뺏는다!”

벽력같이 고함을 질러대는 덕보 영감의 기세에 삼거리 사람들이 모두가 합세했다.

“양코가 사람 친다!”

- 「달맞이」, 198쪽

미군들은 덕보 영감에게 폭력을 가하고, 그런 부당한 대우를 보면서 마을 사람들은 분노하며 저항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모습은 수십 년 전 영감의 아들들이 대항하던 모습과 그대로 닮아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월봉산을 지켜내겠다는 일념으로 산 정상상을 향해 걸었다. 그러나 정월대보름 만월만이 그들을 지켜볼 뿐이었다.

「勳章」과 「달맞이」는 “주한미군의 존재를 일반적으로

미국의 한국에 대한 신식민지적 지배의 핵심”¹⁹으로 상정하고 있다. 1978년 주한 미군 철수 계획이 연기된 사건은 군사 문제를 새롭게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미군부대 근처에서 들려오는 민간인에 대한 인권 침해적 행태와 도를 넘는 범죄 행위들에 대해 한국이 어떠한 능동적 대처도 할 수 없다는 무기력감은 ‘도대체 미국에게 있어서 한국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반복하게²⁰ 만들었다. 대미 일변도의 외교에서 벗어나 세계 정치적 맥락 안에서 미국과 한국의 관계를 바라보면, 미국을 일방적으로 수용하고 허용하는 한국의 상황은 분명한 불평등 관계라는 것이 자명해졌다. 우방이며 평화의 수호자로 믿어 의심치 않았던 미국과 미군에 대해 대등한 지위를 요구하는 것은 이성적 요구에 가까운 것이었다. 이런 관계의 전환을 요구하게 된 한국의 정당한 요구는 미군이 가진 일방적 특혜와 한국인에 대한 반인륜적 만행을 고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勳章」과 「달맞이」는 이런 미군이 한국 영토에서 저지르고 있는 민간인을 향한 만행과 그것을 묵과하고 처벌하지 않는 한국 당국을 함께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부조리함 속에서도 저항하고 항의하면서 민족적 자존심을 견지하려는 태도와 그것을 고발하여 현실을 개조하려는 저항적 태도를 함께 그려냄으로써 민족적 자존심 회복에 관한 시도가 공통되게 드러나고 있는 측면이 있다.

4. 세계 정의 수호라는 허상과 미국의 민낯

단편 「밤손님」²¹은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을 떠올리게 한다. 주인공 형삼은 다 낡아빠진 택시로 영업을 하면서 식구들을 건사한다. 아내는 위병으로 시름시름 앓고 있

19 한국역사연구회 현대사연구반, 『한국현대사 4』, 풀빛, 1991, 37쪽.

20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소, 1989, 68~69쪽.

21 박경남, 「밤손님」, 『漢陽』, 1983.7~8월. 이하 본문에 페이지만 제시하고, 맞춤법과 띄어쓰기는 인용자가 수정하여 제시함.

고, 위를 절반이나 잘랐으나 경과가 썩 좋아지지 않았다. 최근에는 수술 자리에서 피고름까지 나오면서 재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지경에 이르렀다. 밤 늦도록 형삼이 귀 가지 못하고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손님을 기다리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지금 집에서는 아픈 엄마 곁에서 젓먹이 아이와 어린애들이 칭얼거리며 그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테지만, 혹여 손님을 더 태울 수 있을까 하는 기대로 형삼은 길거리를 배회하는 중이다.

형삼의 차에 한 미국인이 탑승하고, 선량해 보이는 신사는 목적지 없이 저녁 드라이브를 청한다. 형삼은 평소 미국인들에 관하여 “너그럽고 신사적이라는 표상”을 가지고 있었다.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모를 선입견으로 흔쾌히 밤손님을 태우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탑까지 기대하며 서울 밤거리를 달렸다. 형편이 궁했던 형삼에게 밤늦게 찾아든 미국 손님은 아내를 고쳐줄 만한 돈과 희망을 가져다줄 귀인 같았다. 미국 손님은 형삼의 조카가 선물해 준 개 형상 조각을 발견하고, “아메리카 순종 불독”이라고 감탄한다. 조각상을 선물한 조카는 “남을 지나치게 믿기를 좋아하는 아저씨 같은 사람들에게는 교훈적일 겁니다. 세상 불 줄 알아야 해요”라는 수수께끼 같은 말과 함께 형삼에게 조각상을 선물했었다. 밤손님은 개가 연미복을 입은 것처럼 보이지 않나며 감탄을 연발한다. 밤손님이 조각상을 감상하는 사이에 택시는 어두운 밤거리를 계속해서 달렸고, 밤손님에게 집안 사정까지 털어놓게 되었다. 밤손님은 형삼을 무척 동정하면서 양복에서 지갑을 꺼내 큰 돈을 아무렇게나 집어 운전대 앞턱에 올려놓았다.

“당신은 바로 돈이 없는 탓으로 가난하지요. 당신이 가난한 것처럼 당신네 나라도 돈이 없어 가난한 겁니다. 우리 미국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 가난한 나라를 도와주는 것을 본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느낀 바대로 미국 사람들은 보다 너그럽고 점잖고 신사적이었다. 방금 전의 돈 이야기로 하여 다소나마 흐려졌

던 미국 손님에 대한 인상이 말끔히 가셔졌다.

-「밤손님」, 195~196쪽

형삼은 밤손님에게서 미국 사람의 너그럽고 은혜로운 마음 씩씩이를 확인하였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미국 사람들의 의무라고 점잖게 말하며, 형삼을 위로하였다. 그리고 밤손님은 조용한 한강변으로 향할 것을 요구했다. 평소 같으면 늦은 시간에 그런 외진 곳으로는 절대 가지 않았을 테지만, 자신에게 뜻밖의 돈까지 주면서 마음을 써 주는 미국 신사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었다. 그렇게 한강변 일대를 달리다 어두운 곳에 이르렀을 때, 택시를 잡는 또 다른 외국인이 보였다. 형삼은 그를 피해 가려 하였으나, 밤손님은 그와 일행이라며 태워달라고 말한다.

새로 택시에 든 이는 ‘토마스’, 밤 드라이브를 핑계로 한강변까지 택시를 몰게 한 밤손님은 ‘월슨’이었다. 차에 탄 토마스는 자신의 포켓에서 다이아몬드를 꺼내어 월슨에게 보란 듯이 내밀었다. 으스대는 토마스를 보던 월슨은 별안간 택시를 멈추게 하고 밖으로 뛰쳐나가 힘들게 리어카를 끌고 가는 행상인 부부를 덮쳤다. 월슨은 무턱대고 사내를 때려눕혔고, 수중에 얼마 있지도 않은 돈을 빼앗아 택시로 돌아왔다. 행상인 부부는 속수무책으로 힘들게 번 일당을 모두 강탈당하고, 이름도 알 수 없는 미국인들에게 폭행까지 당한 것이다. 형삼은 비로소 “저 미국 신사가 강도”라는 것을 깨닫는다. 월슨은 형삼에게도 달려들어 포켓에서 하루 동안 번 돈을 몽땅 털어냈다. 또 안주머니에 있는 아내의 수술비까지 강제로 빼앗았다.

“에익! 인두집을 쓴 야만들아!”

… 탐욕스럽게 생긴 커다란 주둥이 째로 알릴 듯 말 듯 보이는 날카롭고도 앙상한 이빨, 점잖게 턱을 고인 뚱뚱한 두 발족 째에 묘하게 은폐되어 있는 독수리 주둥이 같은 사나운 발톱, 무언가가 득 들어찬 풍만한 배에 얼룩덜룩 돌아난 버짐, 보다는 사타구니에 바짝 끼우고 있는 꼬리…

그 모든 것들은 개가 똑바로 누워 있을 때에는 전혀 볼 수 없었던 것들이었다. …그러니 개는 결코 형삼이가 생각하던 대로 순하고 어진 개가 아니었다.

“내가 왜 저것을 보지 못했을까?”

- 「밤손님」, 199~200쪽

형삼은 월슨에게 돈을 빼앗기면서 그가 조금 전에 갑탄했던 미국 불독 조각을 떠올렸다. 걸으려는 연미복을 입은 신사처럼 너그럽고 선량한 미소를 띠었지만, 뒤에서는 “교활한 횡포함”을 숨긴 불독과 같은 야수들이 미국인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다. 하지만, 때는 이미 늦은 것이다. 가난한 리어카 행상의 돈과 아내의 수술비는 목숨과 같은 것이었지만, 그들은 유희를 즐기듯이 강탈해 간 뒤였다. 형삼이 월슨에게 속은 것처럼,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잘 차려 입은 연미복과 온화한 미소에 자신처럼 속아 왔던 것임이 분명하였다. 형삼은 밤손님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망연자실하며, 애꿎은 불독 조각을 포석 위에 힘껏 내동댕이 치는 것으로 나름의 저항을 대신하였다. 조카가 조각상을 선물하면서 했던 “남을 지나치게 믿기 좋아하는” 형삼의 성정은 결국 불행의 원인으로 작동하고 말았다.

주한 미군은 사실상 치외법권에 가까운 권리를 행사하면서, 주한 미군에 딸린 군속, 가족, 고용인(미군고용인) 등이 모두 이 협정으로 보호받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한국에 온 주한미군과 미군에 관계된 군속, 가족, 고용인 등이 범죄에 대한 어떤 죄의식도 가지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다. 미군의 이런 행위는 “정당한 보상”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된다. 여기에서 ‘보상’이란 북괴 공산집단으로부터 한국을 지켜주는 자유천사로 당연히 받아야 할 혜택이라고 여기는 그들의 그릇된 생각에서 기원한다. 미군 범죄에 대해 미군 당국은 형사처벌은커녕 대부분 주의, 견책 등의 행정적 징계로 처리한다. 한국 위에 군림하는 것에 대해 그들은 분명 ‘보상’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²²

연미복을 차려입고 점잖은 척 앉아 있는 불독은 결과 속이 다른 미국인을 상징한다. 정의를 수호하고 가난한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선진국 미국인은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자아상이다. 하지만 실상은 그들보다 경제적으로 미약한 국가에서 미국의 권위로 군림하고 그 나라의 국민을 조롱하고 약탈하는 무법자와 같다. 마치 아메리카 대륙에서 인디언들을 약탈하고 파괴한 것처럼, 약자에 대한 죄책감이나 인도적 인류애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에게는 제국주의적 우월감을 바탕으로 한 식민지인들에 대한 착취만 남아 있다. 연미복을 입은 멋진 문명국의 신사는 그들이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고발한 작품이다.

또 다른 작품 「정혜」²³는 미국 입양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다. 주인공 정혜는 스티븐슨 부인에게 입양되어 ‘애리사’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한국인 고아였다. 그녀는 입양되면서부터 집안의 모든 일들을 도맡아 하며 노동력을 착취당해 왔다. 양어머니의 친아들 머피로부터는 늘 상폭력에 시달려야만 했다. 정혜는 이 집에서 노예처럼 마구 부림을 받고 학대당하며 살아가는 불쌍한 이방인이었다.

이른바 「고아입양」, 미국인들의 가정에 「양자」로 팔아 넘겨주는 것인데, 말이 「양자」이지 실상은 어린 노예로 팔아먹는 현대판 노예장사였다. 한국의 위정 당국은 수 많은 소년소녀들이 이렇게 노예로 끌려가는 것을 저지하지 않았다. 저지할 엄두도 내지 않았고 저지할 힘도 없었다. 어린이들이 부모를 잃으면 조국이 그들의 부모도 돼주어야 하건만 「대한민국」은 그러한 조국이 아니었다. 자주적인 주권이 없는 한국, 미국의 한 개 속령처럼 워싱턴의 지휘봉에 따라 움직이는 한국의 위정 당국, 이 굴욕적인 역사의 수난을 강요한 미국이나 (이) 어린 정혜까지 현대적 노예로 끌여가는 것이었다.

- 「정혜」, 175쪽

155~158쪽.

²³ 박종서, 「정혜」, 『漢陽』, 1984.1~2월. 이하 본문에 페이지만 제시하고, 맞춤법과 띄어쓰기는 인용자가 수정하여 제시함.

²² 정호일, 「해방 이후 미군 범죄사」, 『겨레의눈』 3호, 우리겨레, 2003.4.19.

한국의 고아 입양은 “현대판 노예장사”와 같았다. 부모를 잃은 아이들은 조국이 자칭해서 노예처럼 팔아버렸다. 어디서도 보호받지 못한 정혜와 같은 아이들은 미국에서 형용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살아야만 했다. 정혜는 입양 이후 10년 동안 학교는 물론이고 가정의 울타리 밖으로 나가지 못했다. 당연히 친구와 교제를 해본 일도 없었고, 늘 노동에 시달리며 겨우 입에 풀칠할 만큼의 음식만 제공받으며 살아왔다.

노예와 같은 삶을 살던 정혜에게 어느 날 낯선 여자가 찾아왔다. 그 여자는 정혜를 데려가겠다고 스티븐슨 부인과 흥정을 하기 시작했고, 실랑이 끝에 “二五〇달러로 낙찰”을 보았다. 그녀는 정혜에게 샌프란시스코에서 “밤손님들에게 <사랑>을 서비스하는 직업”에 종사하게 될 거라고 설명했다. 정혜는 곧 자신이 팔려 가게 될 것임을 눈치챘고, “창부 노릇”은 절대로 할 수 없다며 완강히 거부했다. 머피의 폭행이 이어졌지만, 낯선 여자는 원하지 않는 여성을 강제로 데려갈 수는 없다며 결국 정혜를 두고 떠났다.

이 일로 화가 난 스티븐슨 부인은 정혜를 지하실에 가두었고, 갑자기 내린 폭우로 지하실에 물이 들어차 정혜는 죽을 고비를 넘겼다. 이때 정혜를 구해준 것은 뜻밖에도 머피였다. 머피는 12살 새로운 한국 고아가 오게 되어 있다며, 그 아이는 150달러에 구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집에 두 명의 고아가 필요 없었던 까닭에 정혜를 사올 때의 가격 100달러와 새 고아를 사올 때의 150달러를 합쳐 250달러를 받고 정혜를 팔아버릴 생각이었다고 털어놓는다. 그런 정혜가 불쌍했는지 머피는 한 가지 제안을 한다. 한국에 가는 배에 공짜로 태워주는 대신 선원들의 식탁 준비와 세탁일을 해 줄 사람을 찾고 있으니, 그 일을 정혜가 맡아달라는 것이었다.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정혜에게는 더 이상의 선택지는 없었다. 머피를 따라 도망치듯 집을 나와 도착한 곳은 낯선 철도길 근처였다. 그곳에는 머피 외에도 두 명의 청년이 더 있었고, 그들의 행동이

뭔가 수상해 보였다.

“저 앞의 철교가 끊어져서 이 열차가 정지해 버렸어. 그런데 앞에서 네 번째 화차 안에 귀중품 상자들이 있다, 이거야. 알겠어? 그걸 한 상자만 꺼내오면 평생 호강할 수 있어.” …머피의 「호의」가 실상은 자기를 범죄의 울가미 속에 끌어들이기 위한 미끼였다는 것을 뒤늦게야 깨달은 것이다.

- 「정혜」, 186~187쪽

머피 일행은 도둑질을 위해 모인 패거리였고, 그 일에 정혜를 가담시키기 위한 계략에 넘어간 것을 뒤늦게 안 정혜는 도망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기차를 지키던 경비원들은 무작정 달리는 정혜를 도둑으로 착각하여 총을 발사했고, 두 발이 정혜의 몸을 통과한다. 경비원들이 정혜를 쫓는 사이에 머피네 일당은 반대 방향으로 벗어나 경비원들의 추격을 따돌렸다. 머피는 미끼로 정혜를 내던진 것이었고, 도구처럼 쓰임이 다 끝난 그녀는 총에 맞아 생명이 꺼져가고 있었다. 어머니의 환영이 보이면서 정혜는 겨우 입술을 떼어 어머니를 불러 보았다.

정혜는 얼른 뛰어가고 싶었지만 몸을 일으킬 수 없었다. 경비원들이 그녀의 몸을 이리저리 굴리면서 놓아주지 않았다. 그녀는 안타까이 어머니를 부르며 구원을 청했다.

“엄마, 이 백정놈들이 날 죽여요! 엄마, 엄마...”

어머니는 대답 대신 눈물만 흘렸다. 그 눈물이 포물선을 그으며 내려와서 정혜의 얼굴에 떨어졌다. …그러나 눈은 감지 못했다. 커다랗게 뜨고 굳어진 그녀의 두 눈엔 어머니를 부르는 안타까움과 함께 나(이) 어린 자기를 이역만리 미국으로 끌어와서 갖은 학대와 고역 끝에 이렇게 무참히 죽이는 양키들에 대한 원한이, 죽어서 땅에 묻혀도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원한이 어려 있었다.

- 「정혜」, 189쪽

정혜의 마지막은 더욱 비참했다. 총에 맞아 죽어가는 어린 소녀의 몸을 경비원들은 함부로 굴리면서 조금의 동정심도 발현하지 않았다. 머피는 끝내 그녀를 범죄의 희생양으로 사용하고 가차 없이 버렸으며, 한국의 고아 소녀는 미국땅에서 어떠한 존엄도 갖지 못한 채 억울한 죽음을 맞이한다. 눈도 감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한 정혜는 죽음으로써 온갖 학대와 고역에서 비로소 벗어날 수 있었다. 미국인들을 “백정놈들”이라고 일컬으며 정혜의 비참한 생은 종지부를 찍는다.

한국의 해외 입양은 1953년 4명, 1954년 8명으로 시작되었다. 당시 입양 관련 법규가 마련되지 않아 개인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던 해외 입양은 1955년 ‘고아입양특례법’이 제정되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로써, 한국전쟁 직후 전쟁고아와 혼혈아들의 해외 입양은 1956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²⁴ 1980년대 중반 한국의 연간 해외입양 아동수가 최고 9천여 명에 달하면서 세계 1위 고아 수출국 오명을 얻기도 했다.²⁵ ‘세계 1위 고아 수출국’은 뉴욕타임즈 기사로 촉발되었는데, “민족적 자존심을 해치는”²⁶ 국격 저해 사건으로 지목²⁷되면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 때가 1988년이였다. 올림픽이라는 거대한 국제적 행사와 그동안 알면서도 침묵했던 사회적 치부가 결부되면서 한국 사회에 큰 파장이 일었다. 이러한 사건이 있기 몇 해 전에 발표된 「정혜」는 이런 한국의 입양 문제를

를 보다 앞서 다루고 있는 것이며, 동시에 미국의 위선적 행태를 함께 비판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해외입양은 그동안 민간단체에서 전담하여 왔고 국가의 통제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입양 절차가 허술하였고 입양 후 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다.²⁸ 소설 「정혜」는 이런 허점을 이용하고 선행을 빙자해 아동을 착취하고 노예처럼 부리는 선진국 미국인들의 모습을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미국은 자비와 은혜는 땅이 아니었다. 흑인 노예를 착취하고 부리듯이, 한국인 소녀를 돈으로 소유한 후 무참하게 버린 비정한 나라만 있을 뿐이다. 「정혜」는 한국 “고아 입양”의 허상을 노골적으로 고발하고 있다.

5. 결론

광주항쟁으로부터 촉발된 대미 관계에 대한 성찰은 거대한 민족적 의문을 만들면서 그에 대한 답을 미국의 태도 변화 촉구와 민족적 주체성의 회복을 통해 찾고자 하였다.²⁹ 보다 대등한 관계에서 민족적 자존심을 회복하고자 하는 의식의 촉발은 미국과 한국의 관계를 어떻게 재설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이어졌다. 한국의 반미는 미국에 총체적으로 적대하는 정치적 신념으로서의 반미라기보다는 일방통행으로 일관한 지난 50여 년 간의 한미관계와 우리의 대미 콤플렉스를 교정하려는 역사적 요구의 성격이 강했다.³⁰

이러한 한미 관계 재설정 관하여 조금 이른 시점에서 논의하고 견인하고자 했던 매체가 제일교포 종합잡지 『漢陽』이었다. 1974년 문인간첩단 사건 이후로 국내에서는 불온서적으로 낙인찍혔지만 계속해서 조국의 지식인

24 장운수, 「한인디아스포라와 해외입양」, 『한국세계지역학회』 26(3), 세계지역연구논총, 2008, 90쪽.

25 유혜량, 「해외입양 한인의 정체성 정치에 관한 연구」, 전남대 박사학위논문, 2015, 1쪽.

26 “『뉴욕 타임즈』紙의 지적대로 6.25 전쟁 직후 전국이 황폐했을 때 시작된 전쟁고아의 해외 입양이 국민소득 3천 달러에 올림픽을 개최할만큼 국력이 부강해진 오늘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은 어떤 구실로도 명분을 찾기가 어렵다. …참으로 국가의 체모와 수많은 해외 동포들의 민족적 자존심에 먹칠을 하는 서글픈 현상이 아닐 수 없다.”(변광수, 「孤兒 수출국 오명 벗는 길」, 『동아일보』, 1988.5.3.)

27 “『뉴욕타임즈』紙는 지난 21일자 「서울저널」이란 칼럼을 통해 미혼모 등으로부터 버려진 한국 어린이들이 매년 6년여 명씩 입양이란 형식으로 미국에 「수출」되며, 한국 정부는 이런 관행을 간과할 뿐만 아니라 지원까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함영준, 「孤兒 수출 세계 1위」, 『조선일보』, 1988.4.24.)

28 최용길, 「우리나라 입양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제주대 박사학위논문, 2020, 106쪽.

29 김병익, 「한국문학사 다시 읽기」, 『현대문학』, 현대문학사, 2004년 3월호, 217쪽.

30 권용립, 「천미와 반미, 그 사이에서 숨은 그림 찾기」, 『당대비평』, 생각의 나무, 2003 봄, 171쪽.

계층 및 민주 세력들과 교류하면서 한국 사회에 지대한 관심을 가졌고, 5.18과 그 이후의 독재정권에 관한 보도와 논평도 즉각적으로 반영하였다. 오히려 조국과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논의하지 못했던 사회적 요구와 비판을 수월하게 다룰 수 있었고, 그에 대한 날 선 논조와 더불어 국내의 민주세력들이 나아가야 할 지향성을 더 일찍 간파할 수 있었다. 보통 80년대 반미 소설들이 87항쟁 이후에 꽃을 피우는 것에 비해, 『漢陽』의 반미 소설들이 보다 일찍 선보일 수 있었던 것에는 이런 독자성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종속적 경제, 미군의 민간인 범죄, 입양아 등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두루 다루며 신랄한 비판의 자유를 획득할 수 있었던 것도 조국과 분리된 독자적인 체제의 잡지였기 때문에 가능했다.

본 연구에서는 『漢陽』의 반미 논조와 소설을 조명하였다. 『漢陽』은 1984년에 중간하면서 독자적이면서도 선도적이었던 특수한 언론 매체로서의 명맥이 끊어진다. 하지만, 일본에 살면서 조국의 현실에 대해 관심의 끈을 놓지 않고, 함께 우려하고 비판하며 올바른 방향을 견지해 나아가려고 했던 재일교포 지식인들의 목소리는 그대로 남아 있다. 일본에서 바라본 조국이었기에 더욱 특별했고, 경계에서 보았기 때문에 더 멀리 볼 수 있었던 한국의 모습은 그래서 더 객관적이고 냉철할 수 있었다. 『漢陽』의 보도와 논평, 그리고 문학작품들은 당시 우리 사회의 모습을 한 겹 벗기고 더 정밀하게 들여다보는 특수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 박경남, 「밤손님」, 『漢陽』, 1983.7~8월.
 박종서, 「병든 깃발」, 『漢陽』, 1983.1~2월.
 _____, 「정혜」, 『漢陽』, 1984.1~2월.
 이창수, 「달맞이」, 『漢陽』, 1984.3~4월.
 조경수, 「훈장」, 『漢陽』, 1983.3~4월.

2. 단행본 및 논문

- 권용립, 「친미와 반미, 그 사이에서 숨은 그림 찾기」, 『당대비평』, 생각의나무, 2003 봄.
 김병익, 「한국문학사 다시 읽기」, 『현대문학』, 현대문학사, 2004.3.
 류상영 외, 『한미관계의 재인식 1』, 두리, 1990.
 버리 편집부 편, 『신식민지 국가독점자본주의 논쟁』, 도서출판 버리, 1988.
 서울대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서울대사회과학연구소, 1989.
 이성욱, 「반미문학의 전개과정과 과제」, 『실천문학』, 실천문학사, 1988 여름.
 임현영, 『변혁운동과 문학』, 범우사, 1984.
 장자영, 「해방 이후 소설의 한미관계 수용 연구」, 중앙대 석사학위논문, 2004.
 정호일, 「해방 이후 미군 범죄사」, 『겨레의눈』, 3호, 우리겨레, 2003.4.19.
 최용길, 「우리나라 입양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제주대 박사학위논문, 2020.
 한국역사연구회 현대사연구반, 『한국현대사 4』, 풀빛, 1991.
 홍성영, 「한미군사동맹의 실상」, 『실천문학』, 실천문학사, 1989 봄.
 황석영, 「항쟁 이후의 문학」, 『창작과비평』, 창작과비평사, 1988 겨울.

3. 기타 자료

- 「한미상호방위조약」,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https://www.archives.go.kr/next/new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5139&sitePage=>, 2014.2.20. 최종 수정 내용 검색.

Abstract**A Study of Anti-American Consciousness Revealed in Hanyang, A Comprehensive Magazine for Korean Residents in Japan in the 1980s**

Han, Seung-Woo | Chung-Ang University

The Gwangju Uprising of 1980 became the fuse for anti-American sentiment. Since then, anti-Americanism in Korea has developed as a historical demand to correct the one-sided nature of the previous fifty years of US-ROK relations and the US-oriented complex. The question of how to view the nation and how to position it within the global framework was also a major historical challenge for democratic forces at the time. The first to analyze Korea's problems within this perspective was the Korean-Japanese intellectual magazine "Hanyang." This study examines the previously neglected anti-American novels of "Hanyang" to shed new light on the perspectives of anti-American sentiment in the 1980s.

Keywords Hanyang, Korean-Japanese magazine, anti-American consciousness, anti-American novel, decolonialism
